

그 많던 무안·신안 낙지 다 어디갔나

잦은 비·수온 상승으로 어획량 작년 10분의 1

20마리 한접에 20만원 '금값'... 식당 휴업 속출

최근 전남 서남권 대표 수산물인 낙지잡이 성수기 맞았으나 예년보다 높은 바다수온 탓에 낙지생육이 나쁘고 잦은 비로 조업일까지 줄며 낙지 생산량이 급감, 신안·목포지역 어민과 상인들이 유통을 짓고 있다.

9일 신안·무안지역 낙지잡이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9월초까지 30억~50억원의 어획고를 올렸지만 올해는 지난해 수준의 10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압해지역 낙지잡이 어민들은 지난

해 7~8월동안 한 어가당 1500만원정도 어획고를 올렸으나, 올해는 7~8월 조업일수가 3~4일 정도에 불과, 1인당 겨우 50만원 정도에 그쳤다.

양태성(52) 신안갯벌낙지 영어법 인조합 대표는 "어민들은 올해 불볕 더위로 바다수온이 예년에 비해 높은 데다 잦은 비로 영산강 하구인 수문을 수시로 방류, 압수가 유입된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안·무안 갯벌에서 생 산된 낙지를 공급받는 목포지역 전문

식당가에도 불똥이 튀었다. 낙지 어획부진으로 가격이 경총 떤데다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힘들게 구입하더라도 비싼 가격 때문에 순님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등 낙지파동이 일고 있다.

이렇다 보니 낙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들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아예 물을 담고 휴업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낙지 한 접(20마리)에 크기가 작으면 10만원, 중·대는 15~20만원 까지 치솟고 있어 주석 대명절을 앞두고 어민과 음식점·소비자 모두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낙지 전문점 H식당 주인 김모씨는 "낙지를 구할 수 없어 갈치찜 등 다른 메뉴로 장사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예

약 순님들이 한결같이 낙지만 찾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낙지가 잘 잡힐 때까지 휴업하기로 했다"고 하소연했다.

주부 김영주(산정동)씨는 "잦은 비와 태풍으로 과일과 채소 등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다 낙지 등 수산물까지 흥난이어서 올 추석은 쓱쓸한 명절이 될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낙지잡이 어민들은 다음달 중순께 바다 수온이 낮아지고 잔여물이 불면 낙지가 잘 잡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임현기 무안 갯벌낙지생산자협회 회장은 "음식점에서 낙지를 공급해 달라고 주문이 쏟아지지만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이상선기자



장흥군 텁진강 수산연구센터는 9일 텁진강 석대보에서 내수면 어업인과 환경단체·수산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산 어종인 어린 잉어 10만마리와 다슬기 50만마리를 방류했다. 센터는 텁진강에서만 서식하는 멸종 위기 보호대상 어종 '꺽저기' 복원사업과 고부기자치 토산어종 중요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장흥군 제공)

전남 '곤충 산업화' 힘찬 날갯짓

오늘 협회 창립... 새 소득원·관광 자원화 총력

전남도가 농가 부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곤충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분석 육성한다.

전남도는 10일 영암군 친환경교육관에서 전남 곤충산업 발전과 생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곤충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 곤충 산업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도, 시·군, 농촌 진흥청, 곤충사육농가, 생물방제센터, 한방산업진흥원, 학평곤충연구소, 곤충생산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창립총회를 주도해온 발기인 대표 최문체(함평군 곤충 사육

농가)씨가 회장에 선임되고 임원진 10명을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현재 전남도내 곤충 사육농가는 구례·함평·해남 일원 64농가, 대부분 장수풍뎅이와 나비·사슴벌레 등 애완·화학·행사용으로 사육하는 부업 형이어서 규모나 기술 측면에서 영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사육 및 판로 확보 등 경영안정을 위해 조직체 결성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곤충 사육농가당 평균 소득

은 28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사육 및 판매 농가들간 정보교환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곤충 선도농가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 토록 유도, 이날 창립총회를 갖게 됐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 육성을 위한 '친환경 곤충산업'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해 곤충산업 생산기반 구축, 안정적인 유통체계 마련,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생태공원조성을 통한 관광 자원화를 추진해 곤충산업 메카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신안 도초고 기숙사 '1004학사' 개관

지난 2008년 9월 '기숙형 고교'로 선정된 신안군 도초고등학교(교장 안경현)에 친환경 기숙사가 신축됐다. 신안군 도초고는 10일 '1004 학사'로 명명된 기숙사 개관식을 갖는다.

사업비 37억원이 투입된 신축 기숙사는 건축면적 2024㎡(지상 4층) 규모로 기숙실과 학습실·미디어실·화장실·샤워실·사감실·관사·세탁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숙실은 학생실 27실과 방문자 장애우실 2실을 갖췄으며 관리실은 사감실 2실·상담실 1실·관사 7

실로 구성돼 있다. 특히 가정과 같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침실을 비롯해 학습실과 정보 검색실 및 체력단련실 등 현대화된 첨단 기숙사 시설을 갖췄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숙형 고교'로 지정된 설지역 학교인 도초고는 지난 2007년 '1군 1 우수 고등학교'로 선정돼 3년간 16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우수인재의 도시유출을 막고 능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강진군 부패신고 최고 5억 포상금

청렴대책 발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완도군에 이어 강진군이 단 한차례라도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공직비리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직자 청렴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황우홍 강진군수는 9일 군청 대회 의실에서 강진군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강진군 청렴도 향상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반부패·청렴도 향상 시스템 구축 ▲부패신고 보상제 확대 ▲부패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다.

부회장은 "부패 신고자에게 공무원은 1계급 특진 또는 신고금액의 10~50배 보상금을, 민간인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금액의 10~50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받은 금액의 1~5배를 부가시키는 징계부가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라이크 아웃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시책추진 ▲민원처리 절차 획기적 개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 ▲공직자 365 친절운동 전개 등을 추진한다.

특히 강진군은 부폐 신고자에게 공무원은 1계급 특진 또는 신고금액의 10~50배 보상금을, 민간인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금액의 10~50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받은 금액의 1~5배를 부가시키는 징계부가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장흥군 부패신고 최고 5억 포상금

청렴대책 발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완도군에 이어 강진군이 단 한차례라도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공직비리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직자 청렴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황우홍 강진군수는 9일 군청 대회 의실에서 강진군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강진군 청렴도 향상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부회장은 "부패 신고자에게 공무원은 1계급 특진 또는 신고금액의 10~50배 보상금을, 민간인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금액의 10~50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강진군은 부폐 신고자에게 공무원은 1계급 특진 또는 신고금액의 10~50배 보상금을, 민간인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금액의 10~50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받은 금액의 1~5배를 부가시키는 징계부가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청바지 염료식물 '인디고페라'

나주, 국내 첫 대량재배 성공

청바지 염색에 사용되는 염료식물인 '인디고페라'는 아시아 일대에서 첫 대량재배에 성공했다.

(재)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은 이열대 지역인 인도가 원산지로 염료식물인 '인디고페라(Indigofera)'의 국내 첫 대량재배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인디고페라는 농림식품부의 '인디고페라' 생산 작물 산업화 연구 공

모에 선정돼 지난 2006년부터 재배를 시작했으며 올해 밭(160여㎡)에 심어 최근 1차 수확을 마쳤다. 염색재단은 이번 성공으로 대량 재배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비 대체작물로 가능해 농가소득 등도 기대하고 있다.

천연염색문화재단 장흥기 관장은 "국내 재배가 활성화되면 연간 10억 원대의 염료수입 대체효과 및 청바지 가격경쟁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주암·장흥댐 조류발생 대비

K-water 수질관리 나서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주암댐·장흥댐·수어댐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K-water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찾은 호우로 인해 질소·인 등이 포함된 영양물질이 유입되고 수온 및 일사량 증가로 급격한 조류(藻類)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남지역본부는 조류가 발생된 수역에 황토살포와 주 1회 자체 조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역별 물감시원의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상류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일순 전남 운영처장은 "주암호의 보다 나은 수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조류제거 및 상류 부유물 합동수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승기동기자 song@

‘올 추석엔 배 증류주 ‘아락’ 어때요’

‘느린마을 나주양원’ 출시



추석을 앞두고 나주 배를 이용해 만든 술이 첫선을 보였다.

전통주 생산업체 배상면주가의 지역 양조장인 '느린마을 나주 양원'은 나주에서 생산되는 배의 생즙을 증류해 만든 '아락'(사진)

을 출시,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배상면주는 지난 2008년부터 '고을 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나서 이번에 나주 배와 단양마늘·하동녹자 등 지역의 농·특산물을 재료로 사용한 증류

주인 '아락' 3종을 출시했다.

대부분의 소주가 주정에 물을 타서 만드는 흐석식인데 비해 이

번에 출시된 '아락'은 배 생과 그

대로를 자연 상태에서 숙성과정을 거친 후 증류, 원료의 풍미와 향을 그대로 살린 25도 증류주이다.

느린 마을 나주양원 홍길식 대표는 "다음달에 E-마트 입점과 친구에게 출시된 '아락' 3종을 출시했다.

대부분의 소주가 주정에 물을

타서 만드는 흐석식인데 비해 이

부동산 미분양

광주의 강남! The SJ 더샵아파트

25% 매각할인! 최대 1억2천만원 할인!

고층 대률 물건 최다 보유!

44py 54py 65py

공동증개 문의환영!!

봉선동 더샵아파트

봉선동 더샵아파트

봉선동 더샵아파트

봉선동 더샵아파트

봉선동 더샵아파트

봉선동 더샵아파트

봉선동 더샵아파트